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명 채용

-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27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규모다.

채용 인력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은 물론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9월 개원을 앞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204명에 대한 채용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채용공고를 실시한 데 이어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채용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노동존중사회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단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든든한 행복파트너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입사지원서는 8월 12일(수)부터 8월 19일(수)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4일(화) 발표하며, 12월 14일(월)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된다. 이후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단은 신규직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링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인재경영국 인재기획부	책임자	부장	홍창표 (052-704-7051)
		담당자	팀장	서금지 (052-704-7637)

